

20대 국회, 여야 섞어 앉는 풍경 보나

새누리 정진석 초당적 자리 배치 제안... 실현될지 주목

더민주 “논의해 보겠다”... 국민의당 “긍정적 검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소통과 협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소속 정당에 관련 없이 섞어 앉도록 배치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새로운 20대 국회 본회의의 풍경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과 제3당인 국민의당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힘의 명령을 이행하고자 본회의 의석 배치부터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며 정당별 의석 배치를 없애고 여야가 섞여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유력한 대안으로 소속 상임위별로 의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상 하다 보면 (여당이)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라면서도 “어쨌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끼리 앉아서 긴급하게 의논할 것을 그때그때 의논하는 측면에서는 당끼리 앉는 게 의미가 있고, 영구적으로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앉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일정일단이 있으니 그런 논의는 나중에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도 “논의는 해봐야 하나,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 단상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원내 1당이 중앙을, 원내 2당이 왼쪽을, 나머지 정당이 오른쪽을 차지하도록 해왔다. 가장 왼쪽에는 국무위원들이 앉는 등 각 당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국회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정당별로 의석을 배치하다 보니 피아가 분명해지면서 본회의장에서 전선이 갈로 자른 듯 명확히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구애받지 않고 섞어 앉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앉거나, 아예 선착순·무작위로 앉는 등의 방식으로 하자는 게 정 원내대표의 구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3~2014년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절부터 여야의 대립 구도를 그대로 옮긴 듯한 본회의장 좌석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으며, 최근 국회 사무처와 의논한 결과 좌석 배치를 바꾸는 게 절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공간인 만큼 20대 국회에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본회의장 구성부터 변화를 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좌우로 나뉜 여야의 의석을 섞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수(選號)에 따른 좌석 배치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좌석 배치 변화를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앞쪽에 초·재선의 의원들이 앉고, 뒤쪽으로 갈수록 다선 의원들이 앉는다.

이런 배치는 여야 중진과 지도부가 뒤에 앉아 초선 의원들을 지시하거나 ‘배후조종’하는 듯하다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고 정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처럼 본회의장 뒷공간에서 여야 간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막후 협상”을 벌여야 하는 일부 당직자만 예외로 두고 나머지는 선수 구분 없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될 전망이다.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 모두발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 티타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언제쯤

지난해 5월 이후 중단... 아직 ‘신중모드’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정기 회동 부활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정기적인 만남은 대화와 타협의 장(場)이 예측 가능한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소통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당 체제는 여야의 소통의 정치가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기 회동이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은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매주 월요일 양당 원내대표를 오가며 정례회동을 가졌

다. 박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우은근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나서는 매주 화요일로 옮겨졌고, 이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지명 문제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

고 나서도 정례회동은 이어졌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지난해 5월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정례회동은 중단됐으며 여야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만 만났다.

일단 20대 국회의 새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새누리당 정진석,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부활하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3당 체제라는 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양당 체제에 비해 쉽지 않다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이 성사되기 보다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실무적인 접촉을 거쳐 이견이 좁혀지거나 합의가 도출되면 원내대표들이 회동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

더민주, 광주 총집결

12~13일 워크숍... 5·18 기념식 전원 참석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13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1박2일 일정으로 열기로 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인 오는 18일 기념행사에도 전제 당선인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이날에만 두 차례에 걸쳐 당 차원에서 광주에 총집결하게 된다.

당 관계자는 9일 이 같은 당의 계획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냉정한 심판을 받은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마음을 보고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광주 8석 가운데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참패

를 했다. 이번 결정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워크숍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의 오는 18일에도 가급적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5·18 묘역도 공동참배할 계획이다. 17일 열리는 전야제에도 지도부가 참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민주의 당선인 전체 워크숍과 별개로 오는 10일에는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오직 민생, 달리는 초선’을 슬로건으로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더민주 당선인 123명 중 초선은 46.3%인 57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3당 “북핵 용납 안돼... 정부, 대화·협상 나서야”

국민의당 “제재·대화 병행을”

더민주 “외교라인 총동원해야”

야당 지도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7차 노동당대회 핵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핵무기는 북한의 경제에도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

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이중적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적절치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폐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민주의 앞으로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 인권침해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

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스스로 파탄시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군사적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지만, 봉쇄와 제재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실무회담을 하다가는 서로 주고 당기다가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면서 “(남북)정상회담만이 이런(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압박만으로는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6자 회담의 틀에서 북핵 폐기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과 채널도 병행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호 “5·18 기념식 ‘임 행진곡’ 제창돼야”

이재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9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36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 의원 36명을 포함한 158명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민의 마음속에 공식 기념곡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중북

논란의 뒤에 숨어 기념곡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오는 18일 제36주년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참석자 모두의 입으로 불려져야 하고, 그것이만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 운암동 건물 매매 : 제1중생 대지 165㎡
보증금 1억2천, 월세 290만원, 매매 7억2천

- 토지매도 :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자연농지지역, 8차선도로점,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읍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저수지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경매 배우면서 일할실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호로 50번길 55번지 KT몽암빌딩1층(몽암저수지맛있는편)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뀐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문외한이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